

주의사항

5) 딱딱한 부위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시고 모서리 부위에 앉는 것을 피하도록 합니다. (조직검사 부위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 외래나 응급실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 1) 한기가 들면서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는 경우
- 2) 고열(38.3도 이상)이 나는 경우
- 3) 혈뇨가 지속적으로 심하게 나는 경우(토마토 주스와 같은 소변)
- 4) 소변이 마려우나 전혀 소변을 볼 수 없는 경우
- 5) 혈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전립선 조직검사서 음성이 나왔으면 전립선암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검사 후에 혈뇨, 혈정액을 보이며 경미한 통증도 동반됩니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조직검사 후에 일부 환자에서 육안적 혈뇨, 혈정액증, 직장출혈 및 혈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환자에서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주 드물게 수혈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과 출혈량이 심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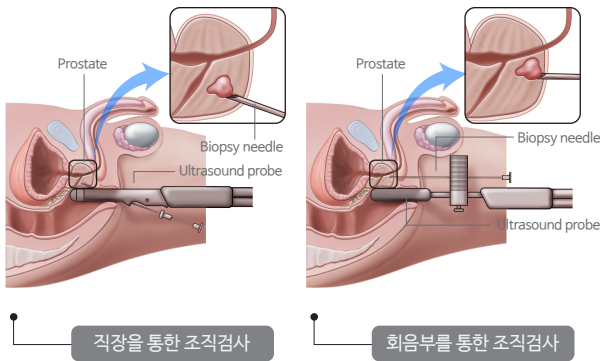


전립선 조직검사

전립선 조직검사란?

전립선 초음파 검사, 직장 수지 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거나,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가 높아 전립선 암의 감별이 필요할 때 전립선 조직을 직접 채취하여 종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전립선 조직검사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항문)을 통한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과 회음부를 통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직장초음파를 사용하여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시술 방법

- 1) 조직검사 전 관장을 시행하고 적절한 항생제 주사를 투약받습니다.
- 2) 지시에 따라 쇄석위 혹은 측면으로 누운 자세를 합니다.
- 3) 시술 부위를 소독하고 소독된 천으로 덮은 후 부분마취를 합니다.
- 4) 경직장 초음파를 통하여 전립선을 확인한 후 보통 10~14 군데 바늘을 삽입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 5) 초음파 소견상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경우 해당 병변에 추가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6) 조직 검사 후 직장 내에 출혈과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 거즈를 2~3개 정도 삽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배변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 7) 조직검사 결과는 검사 1~2주 후 외래에서 확인합니다.

검사/시술의 제한점

- 1) 전립선염이나 심한 요로감염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2) 항문의 입구가 좁아져 있는 경우, 초음파 기기가 진입할 수 없어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3) 아스피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항응고제 중단 후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중단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 4) 비교적 정확한 검사이나 암 진단률이 100%는 아니므로,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이더라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추적관찰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검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 1) 통증: 조직검사 시행 시 혹은 직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치핵, 치루 등 항문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나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출혈: 일부 환자에서 육안적 혈뇨 (23~63), 혈정액증 (10~50), 직장출혈 (2~22) 및 혈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스피린 등의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환자에서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주 드물게 수혈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출혈량이 심할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 3) 감염: 열, 오한, 배뇨통, 뒤무직함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을 통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전립선 및 요로계의 감염 위험성이 있으며 드물지만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증상 발현 시 바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 4) 배뇨장애: 요로 감염 등이 없더라도 조직검사 후 일시적으로 전립선이 부으면서 전에 비하여 배뇨 시 불편하거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별도의 치료 없이 호전되지만 일시적인 증상의 경감을 위해 약물 요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급성 요폐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요배출을 위해 도뇨관 등을 유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 5) 미주신경반응: 검사 중 일시적인 혈압저하, 서맥, 발한 등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합병증 없이 대증요법으로 호전됩니다.

주의사항

- 1) 검사 후 1달간 운동, 부부관계, 사우나, 장거리 여행 등의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 2) 병원에서 받은 약(항생제)을 꾸준히 복용합니다.
- 3) 미온수를 받아 약2~3분간 음낭 부위와 항문 부위에 좌욕을 시행합니다.
- 4)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